

서울 인사동 '광주 미술 현황과 전망' 展 성황



유수정



이이남



손봉재



최황



박수만

쏟아진 호평... 국내외 잇단 러브콜

싱가포르·서울 옥션 작품판매 제의

전국 갤러리 개인전 초청도 줄 이어

광주지역 작가들이 싱가포르 옥션 등 국내외 유명 옥션과 손잡는다.

최근 나인갤러리(관장 양승찬) 주최로 서울 인사아트센터에서 열렸던 '광주 미술의 현황과 전망'(16~23일)에 참여한 지역작가 10여명이 국내외 유명갤러리로 부터 러브콜을 받았다. 이같은 성과는 삼성 비자금 스캔들과 박수근의 '밸리에' 위작 논란으로 미술시장이 위축된 분위기에서 나온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

이번 '광주 미술의 ...' 전시에는 박태후, 정순이, 최향, 김숙빈, 오이랑, 강동권, 주홍, 김일근, 신호운, 전형순, 조윤성, 조은경, 최선 등 다양한 장르의 작가 40여 명이 참여했다. 중견작가 뿐 아니라 실현성 강한 젊은 작가들도 참가해 광주 미술의 현주소를 규모 없이 보여주었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광주작가의 작품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라는 입소문을 타고 하루 평균 1천500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는 등 성황을 이뤘다.

무엇보다 가장 큰 수확은 유수정, 손봉재, 이이남, 씨와 개인전을 예약했고, 내년에도 3~4명을 추가로

박수만씨가 싱가포르 옥션으로부터 작품판매 제의를 받은 것이다. 싱가포르 옥션은 홍콩 크리스티와 함께 아시아를 대표하는 경매회사로, 국제무대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국내 대표적인 경매회사인 서울옥션은 조각가 오혜경씨, D옥션에서는 강동권·오혜경씨의 작품을 판매키로 했다.

서울을 비롯해 지방의 갤러리들에서도 광주작가를 대한 개인전 제의가 줄을 이었다. 서울 진화랑이 유수정씨와 상반기 중에 개인전을 개최하기로 했는가 하면, 4월에는 서양화가 최향씨의 개인전을 열기로 했다. 또 중견작가 3~4명의 개인전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 고도화랑도 박수만(7~8월), 이이남(11월초) 씨와 개인전을 예약했고, 내년에도 3~4명을 추가로

선정해 전시를 마련한다. 해마다 4차례 이상 해외 아트페어에 참여하고 있는 고도화랑은 올해 3~4명의 광주지역 작가를 초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부산 김재선갤러리, 대구 서원갤러리 등도 박수만씨 등과 순회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다.

고도화랑 김순협 관장은 "몇몇 유명작가를 제외하고는 호남 미술을 제대로 접해 볼 수 없었는데, 이번 전시회를 통해 가능성 있는 작가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면서 "광주작가들이 현대 미술의 큰 흐름에 전혀 뒤지지 않아 국제 아트페어에 (광주지역 작가들을) 많이 초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술 전문가들의 호평도 잇따랐다. 미술평론가 이태호 교수(명지대)는 "이번 전시회는 서울지역 갤러리에 호남 작가들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젊은 작가들의 독특한 작품세계는 한국화단이 눈여겨봐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광주 미술의 현황과 전망' 전은 오는 2월 14~20일까지 신세계갤러리, 낙인 갤러리 두곳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